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년 8월

석사학위 논문

개혁 개방 정책과 한 중 수교가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보도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추 우 현

개혁 개방 정책과 한 중 수교가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보도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Social Development due to Reform-and-Opening
Policy an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since 1992 on the News Reports of Chinese Mass Media
about Korea

2023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추 우 현

개혁 개방 정책과 한 중 수교가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보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동 근

이 논문을 언론학 석사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추 우 현

추우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박선희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김봉철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이동근 (인)

2023 년 5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viii
제1장 서론	1
제2장 이론적 논의	6
제1절 뉴스가치	6
제2절 가짜뉴스	8
제3절 미디어 사회학	10
제4절 언론의 5 이론	12
제3장 문헌 고찰	15
제4장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7
제1절 연구 문제	17
제2절 연구 방법	18

1 연구 기간	18
2 자료 수집 및 내용분석	18
제5장 연구 결과	20
제1절 <연구 문제 1>의 분석결과	21
제2절 <연구 문제 2>의 분석결과	22
제3절 <연구 문제 3>의 분석결과	22
제4절 <연구 문제 4>의 분석결과	25
제6장 결론	34
제1절 요약	34
제2절 결론	36
참고 문헌	37
부록: 분석 대상 전체 뉴스 기사 112건 제목	41

표 목차

<표 1> 기간별, 분야별 분석뉴스 기사 건수	20
<표 2> 1기간, 2기간 주류 언론매체, 비주류 언론매체 뉴스 기사 건수	25
<표 3> 3기간 주류 언론매체, 비주류 언론매체 뉴스 기사건수	26
<표 4>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언론에 보도된 한·중 수교 이전 발생 한국 사건	30

ABSTRACT

Influence of Social Development due to Reform-and-Opening Policy an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since 1992 on the News Reports of Chinese Mass Media about Korea

Zou Yuxuan

Advisor : Prof. Lee Dong Geun, Ph.D,
Departement of Journalism & Communication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China launched the reform-&-opening policy in 1978. Korea and Chin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This study content-analyzed the news reports of Chinese mass media about Korea in order to find out any influences of China's reform-&-opening policy and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on the news reports of Chinese mass media about Korea.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opening policy in China, the amount of the news reports of Chinese media about Korea has increased rapidly in such fields as politics, society, culture, and sports. Traditionally China was socialistic country, but the reform-&-opening policy drastically changed China as the policy brought the market economy to the country. Chinese mass media began to show keen

interest in various fields of Korea. Although the two countries did not share common areas of interest before the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the reform-&-opening policy relieved the tensions between two countries caused by the ideological differences. There was no substantial exchanges before the two countries entered into the diplomatic relations, but the detente appeared to cause China to change its attitude on Korea.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encouraged the Chinese mass media to pour out news about Korea massively. Chinese mass media did not confine their interest in Korea to the field of politics, but broadened their views to the fields of economy, society, culture, and sports. The mainstream mass media such as 『The People's Daily』 did not make exclusive reports about Korea, but numerous other minor mass media jumped into the reporting of the news about Korea. The Chinese people were able to get news in easy and rapid manner as they entered into the Internet era in full scale in the early 2000s, and Chinese non-mainstream mass media could meet the people's such needs of news, and particularly news about Korea.

The data content-analyzed for this study was not systematical random sample from the entire news about Korea during the study period, so the data of this study does not represent the entire news report properly. The restrictions on the internet sites of the mainstream mass media including 『The People's Daily』, and enormous amount of information on Internet in overly lengthy period of study prevented

systematic approach to the collection and random sampling of the data. Future studies should have preparatory time enough to design the study more systematically.

key words: Korea and Chin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reform-&-opening, media, China, Korea

제1장 서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중 관계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의 교류가 초점이 된다. 1990년대 초 구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끝나고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안보 긴장이 상당 부분 해소되자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정세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이원화되었던 형태에서 다원화가 병존하는 형태로 변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수교 협정을 체결했다. 군사협력 분야에서도 1999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중국 방문 이후 중국과의 군사협력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자본주의를 일부 반영한 경제체제인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90년대 중반 이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1998년 이후 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두 나라 간 문화와 인적 교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 불신과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사이의 과거사 문제와 영토 문제 같은 큰 갈등의 요인은 없지만 ‘동북공정’이나 ‘사드 배치’ 문제 등은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고구려 귀족, 인쇄술, 단오절 귀족 문제 등을 놓고 충돌이 있었으며 양국 국민 간 불신감과 반감이 커졌다. 2016년 한국과 미국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를 주한 미군 기지에 배치하기로 하자 중국은 한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했다.

한·중 관계는 주로 세 가지 문제로 집중된다. 첫째, 경제상의 상호보완성과 차관과 합작, 그리고 상호 협력 등이다. 둘째, 문화상의 공통성과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이다. 셋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갈등에서 비롯된 한·중간 군사적 이슈이다. 국가 간 갈등과 국민 간 불신에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고, 한 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김영욱 외, 2006).

미국의 언론인이자 커뮤니케이션 사상가인 월터 리프먼(Walter Lippmann)은 1922년 자신의 저서 『Public Opinion』(여론)에서 “현실에는 실제 세상이 있고, 사

람들의 머릿속에는 언론 매체를 통해 인식되는 실제 세상에 관한 그림이 존재하는 데 실제 세상에 관한 그림과 실제 세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고 보았다. 리프먼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언론 매체가 뉴스의 취사선택을 통해 실제 세상과 동일한 그림, 즉 의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이동근, 2021).

한·중 관계에서 언론 매체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언론 매체는 국민에게 인접 국가를 어떤 이미지로 묘사하는가? 언론 매체는 인접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한·중 간의 실제적인 이해관계와는 별도로 언론 매체가 독자의 시선을 끌고 독자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건이나 이슈를 의제화(agenda-setting)하거나 특정하게 해석(framing)하게 되면 국가 간 갈등과 불신이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덩샤오핑이 나라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개혁·개방 정책이 1978년부터 시행되면서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강력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개혁·개방 정책으로 물질적 삶이 향상됨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독립성이 크게 향상되자, 사람들의 사고(思考)는 점점 더 활발해지고 사고의 변화 주기도 점점 더 짧아졌다. 국가가 사람들의 사고를 조정하는 능력은 점차 약해지고 사고의 불확실성도 크게 높아졌다.

사람들은 각자 상이한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국가 주도의 언론은 사람들의 사고를 통제하기가 점점 어렵게 되었다. 때마침 공산당의 ‘사상 해방과 실사구시’ 라는 사상노선이 확립됨에 따라 개혁과 혁신은 시대의 요구가 되었고, 창조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의식이 높아졌고 사람들의 사상 활동은 개인의 경제적 수준, 사회적 지위 및 가치 개념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저마다 사고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개인마다 교육 수준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달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사물을 대하는 견해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왕계난, 2001).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자본주의를 일부 반영한 경제체제인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를 골자로 한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 사회에 일련의

변화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빠른 경제 성장으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 둘째,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교육과 문화 등 사회 제 분야가 빠르게 발전했다. 셋째, 개혁·개방 정책으로 사상적으로 해방된 중국인들은 자유롭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넷째,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경제 교류를 통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여 인적 교류뿐 아니라 국가 간 경제 교류가 활성화하여 사회 발전을 촉진하였다(황석부, 2010).

개혁·개방 정책에 한·중 수교가 더해지면서 양국 간 교류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때마침 1990년대 초 한류가 중국 사회에 밀려 들어오면서 한국에 관한 사건과 이슈들이 중국인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양국 간 마찰도 나타나고 있다.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은 경제 방면에서 획기적인 진보를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언론 분야에서도 새로운 여명의 시기를 맞이하였다(풍영인, 2010). 개혁·개방 정책으로 시장경제 체제가 구축되면서 언론 매체 시장도 개혁되기 시작하여 중국의 신문 산업은 시장력을 발휘하고 활성화되어 도시 신문, 석간신문, 금융 신문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신문이 발행되기 시작했고 기업식 경영 방식으로 인해 신문사가 손익을 떠안게 되자 공공재정의 부담은 줄어들었다(지호, 2019).

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신문업계의 경영 방식으로 인해 뉴스 전과 과정에서 이윤 창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라 1993년 무렵부터 신문과 뉴스의 상업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과거에는 뉴스는 상품이 아니므로 상품성이 없고, 기자는 상인이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되면서 상품으로서의 신문은 이론의 차원이 아니라 실천의 차원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신문의 상품성을 신문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지 않는 것이 신문 발전의 필연적인 법칙이라는 견해가 견고하지만(소후닷컴, 2018),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시장경제 체제의 언론 제도 아래에서 이윤 추구 언론 매체의 숫자가 크게 늘고 서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뉴스 조작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이윤 추구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1992년 한·중 수교는 한반도 전체는 물론 동아시아 정치 지형을 바꾸는 큰 사

건이었다(조청봉, 2018). 한·중 수교 이래 양국 관계는 안정적이고 빠르게 발전해 왔다. 두 나라의 무역 왕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 경제 방면에서도 양국 관계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정치, 경제적 왕래로 1990년대부터 중국에서는 한국의 팝송, 드라마, 영화 등이 빠르게 퍼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고, 중국 언론은 이를 '한류 문화'라고 불렀다.

한류가 중국 청년 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청년 문화는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는 자유와 쾌락을 중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과감하게 행동하며, 분위기와 취향을 핵심으로 하고, 유행에 발맞춰 과감하게 소비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의 청년 문화는 한류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지만, 한류가 이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 한편 한류는 한·중 간 문화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한류의 영향력으로 한·중 간 문화, 학술 교류 활동이 더욱 증진되었다는 것이다(이리, 2017).

이와 함께 중국의 전통문화, 드라마, 영화가 한국에 전파되면서 한국인들의 중국 문화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한·중 양국은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의 관계가 증진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 발전의 큰 틀에서의 한·중 간 문화 교류로 인한 분쟁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한복이 중국 조선족 전통 복식과 같은지, 추석은 어느 나라에서 기원했는지,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漢字)의 기원은 무엇인지 등이다. 그러나 한·중 간 역사, 문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여론 조작에서 비롯되거나 인위적으로 정보가 조작되기도 한다.

한편 중국 언론은 한·중 양국의 문화 분쟁을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비슷한 주제의 뉴스가 많아지면 언론 매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가짜뉴스가 늘고 있다. 한국 관련 가짜뉴스는 대부분 소셜 미디어 뉴스 유형이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고 진화하면서 정보의 유통이 쉬워져 언론의 역할을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방대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최신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되자, 파편화된 시간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뉴스 콘텐츠를 제공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중국의 언론 매체 환경은 큰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 언론 매체는 국가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앙방송텔레비전총국』(CCTV), 『인민일보』는 물론이고 민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소프트웨어 앱(Applications)도 정보를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한정된 자원으로 인터넷상의 방대한 뉴스까지 일일이 점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뉴스 내용이 점차 국가 차원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중국 언론은 여전히 국가의 통제권 내에 있지만, 중국 사회에서 언론 매체에 대한 통제권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이 혼란스러워지고 가짜뉴스가 속출하고 있다. 거짓 정보는 대중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극단적인 목소리를 높여 양극화를 조장한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이들은 편협한 민족주의 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정보의 확산 비용이 낮고 전달 속도가 빠르며 적용 범위가 넓으므로 특정 마케팅 기법으로 허위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퍼뜨릴 수 있다(가경국, 2022).

본 연구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보도, 특히 한국 관련 가짜뉴스 등 선정적 보도 현상이 1978년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한 이윤 추구 위주의 시장경제 언론 제도와 개혁·개방 정책에 의해 촉발된 사고의 변화로 인한 신기성 뉴스 가치 추구로 해석될 수 있는지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탐구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뉴스 가치

뉴스 가치(News Values)는 언론 매체가 사실을 기사화하는 기준이다. 언론사에 따라 대상 독자가 달라 독자의 흥미를 끌 만한 요소도 다르므로 뉴스 가치는 상대적이다. 그러나 대개 어떤 사실이 영향성, 시의성, 저명성, 근접성, 갈등성, 신기성 등의 요소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뉴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오택섭 외, 2003).

영향성은 사안이나 사건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 즉 사건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향성은 커진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단순 추돌 사고는 뉴스가 될 가능성이 작지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는 뉴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건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가 적어도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정책 결정자나 엘리트라면 영향성은 커진다.

시의성은 사실 발견(확인) 또는 사건 발생 후 경과한 시간을 의미한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일수록 시의성은 커진다. 반면에 오래된 사건일수록 시의성이 떨어져 뉴스 가치는 떨어진다. 최근에는 24시간 뉴스 채널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시의성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저명성은 사건 당사자의 유명한 정도이다. 당사자가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저명성은 커진다. 또한 당사자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저명성은 커진다.

근접성은 사건이나 사안이 발생한 지역과 뉴스가 배급되는 지역 사이의 거리의 정도이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근접성은 커진다. 예를 들면 수도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중앙 일간지는 적은 지면을 할애하겠지만 그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발행되는 지방 일간지는 그 사건에 더 큰 지면을 할애할 가능성이 크다. 갈등성은 사안이나 사건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의 정도이다. 갈등이 깊으면 깊을수록 갈등성은 커진다. 평화가 유지되는 지역보다는 전쟁 같은 갈등상태에 놓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갈등성이 높다. 신기성

혹은 일탈성은 사안이나 사건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확률이 적은 정도이다. 미국의 언론인 찰스 다나(Charles A. Dana)가 말한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거리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는 신기성을 가진 사실이 뉴스가 된다는 뜻이다.

제2절 가짜뉴스

저널리즘의 3대 기본 원칙인 객관성, 공정성, 진실성 중 진실성 원칙에 어긋나는 가짜뉴스는 ‘뉴스’를 빙자해 유포되는 허위 정보다. 가짜뉴스는 조작, 왜곡, 짜깁기, 접목, 과장 등의 수법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왜곡되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대중의 눈에 쉽게 발견된다. 그러나 일부 진실과 뒤섞인 가짜뉴스는 대중이 인식하기 어렵다. 뉴스라는 이름을 빌려 대중의 시선을 흐리게 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 가짜뉴스다(낙정림, 2022).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언론 매체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가짜뉴스의 생성과 유통이 쉬워지면서 여론을 호도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악영향을 미쳐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언론의 역할과 가치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뉴스 형식을 취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및 거짓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가짜뉴스라고 한다. 작성 목적에 따라 가짜뉴스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자면 먼저 재미를 위한 유머형 가짜뉴스가 있다. 만우절이면 등장하는 가짜뉴스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수익형 가짜뉴스로 언론사의 기사형 광고(advertorial)가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로 주로 정치적, 사회적 과급효과를 노려 만든 기만형 가짜뉴스로 뉴스 기사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기존 뉴스 기사를 재활용하거나 짜깁기하기도 한다. 넷째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행위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 봇(Robot)이 자동으로 가짜뉴스를 작성하여 전파하기도 한다. 사람이 아닌 봇이 가짜뉴스 작성과 전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봇에 특정 정치 성향을 설정하면 무차별적으로 대량의 메시지를 생산하고 전파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언론사가 보도한 뉴스 기사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이 아닌 경우를 오보라고 한다. 사람들을 기만할 목적이 아니라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을 언론사의 포괄적인 실수로 인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오보는 가짜뉴스와 구분된다. 그러나 오보도 가짜뉴스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오세욱 외, 2017).

가짜뉴스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포함한다. 첫째, 가짜뉴스가 다루는 정보는 ‘가짜정보’ (disinformation)와 ‘잘못된 정보’ (misinformation)로 나뉜다. 그러나 후자는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부정확한 정보 생성에 해당하므로 가짜뉴스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는 주관적 고의성이 있는 가짜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둘째, 옛날부터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소셜 미디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배경으로 가짜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는 논의의 주안점을 인터넷에 두고 있다.

셋째, 전통적인 언론윤리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론보도는 필수적이며 ‘선동’은 주관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가짜뉴스의 범주로 분류된다. 전통 언론 매체가 쇠퇴하고 일인 미디어의 부상과 함께 객관적 보도와 주관적 논평의 경계가 모호해진 만큼 가짜뉴스 논의에 ‘선동’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좌역로, 2021).

제3절 미디어 사회학

그동안 매스미디어 연구는 주로 미디어 메시지의 영향력, 즉 미디어 효과에 관심의 초점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매스 미디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속해 있는 사회의 제 요인과 미디어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미디어가 생산해 내는 메시지, 즉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미디어 사회학적 접근 방식은 미디어 연구의 중요한 관점이다.

미디어 콘텐츠는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사안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 복잡하고 광범위한 다차원에 걸쳐 내재해 있는 제 요인들과 미디어 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쳐 축조되는 것이라는 미디어 사회학적 접근 방식은 뉴스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고 비판적 안목을 갖게 한다. 미디어 사회학적 관점의 매체 연구는 미디어 종사자 개인, 미디어 관행, 미디어 조직, 사회 기구, 그리고 사회 제도 등이 뉴스 생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해 탐구한다. 특히 사회 제도란 이데올로기, 즉 정치적 이념을 포함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총망라한다(Shoemaker & Reese, 2014).

매스미디어 연구와 사회학적 방법을 결합한 미디어 사회학은 매스미디어 연구와 사회학의 교차 학문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형성되었으며, 그 핵심 의미는 사회학과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이용하여 매스미디어와 사회 사이의 다양한 문제를 분석, 해석, 연구하는 분야이다. 사회 제도 중 하나인 매스커뮤니케이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및 기타 요인의 영향과 제약을 받는다. 다양한 요인의 교차 개입 과정에서 사회학적 배경은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절대적인 도입 역할을 한다. 미디어 사회학의 관점을 도입하여 교차 연구를 수행하면 보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미디어와 사회와의 상호 작용 및 통합을 탐구할 수 있다(尚奎, 2022).

미디어 사회학은 미디어의 발전을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와 사회를 긴밀히 연결하고, 미디어와 사회와의 관계를 탐구하며 언론 매체의 콘텐츠 생산 메커니즘과 정치, 경제, 문화 간의 상호 관계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둔다(王輝, 2012). 미디어 사회학은 사회질서, 갈등, 신분, 제도, 계층화, 지역사회 및 권력의

문제 등을 매스미디어와 연계하여 매스미디어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영향에 주목하는 연구 분야이다(李東曉·段丹潔, 2020).

미디어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1992년 한·중 수교는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사회 제도이다. 개혁·개방의 시행으로 중국 사회에서는 경제체제뿐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도 바뀌었다. 경제의 발전은 사회 발전을 이끌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더욱더 생생하게 만들었으며 사람들의 시야도 더욱 넓어졌다. 사람들의 정보 욕구는 더 이상 단순한 알림 유형의 정보가 아니라 신선한 정보를 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중 수교라는 중대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중 간 왕래가 잦아졌다. 사람들의 변화에 언론이 호응하면서 한국에 대한 보도도 많아졌다.

제4절 언론의 5 이론

한 나라의 언론인이 생각하기에 진실되고 객관적인 뉴스 보도가, 다른 나라의 언론인이 보기에는 왜곡되었거나 프로파간다(Propaganda)로 인식될 수도 있다. 완전한 언론의 자유는 신화에 불과하다. 세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쇄매체와 방송매체 시스템은 여전히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규제되고 있다. 모든 언론 제도는 완전한 통제(절대적인 권위주의)로부터 전혀 통제가 없는 식(순수한 자유주의)까지의 양극단을 잇는 연속선상의 어딘가에 해당한다.

정부와 매스커뮤니케이션 간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는지가 아니라 그러한 통제의 본질과 정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언론에 대한 통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개별 국가의 언론의 자유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모든 언론 제도는 언론 매체가 작동하는 국가의 정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다(이동근, 2010).

저널리즘과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본질과 역할에 관한 서로 다른 인식은 다양한 정치 체제와 역사적, 문화적 전통에서 기인하며,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독재 개념, 서양식 개념, 공산주의 개념, 혁명적 개념, 발전 개념 등 다섯 개의 정치적인 개념에 폭넓게 반영되어 있다. 이들은 특정한 정치적 조건과 사회적 가치 아래에서 언론 매체가 이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반영해 주는 규범적인 개념들이다. 독재 개념은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개념이며 20세기에 공산주의 개념과 발전 개념이라는 두 개의 수정본을 낳았다.

서구 민주주의 언론은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와 더불어 서양식 개념 아래에서 작동한다. 서양식 개념은 독재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며 18세기의 정치적 자유주의와 20세기의 사회 책임론(Social Responsibility)의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 혁명적 개념과 서양식 개념은 공히 정부의 통제 밖에서 작동하려고 한다. 발전 개념은 적합한 미디어 자원과 효과적인 정치적, 경제적 기구가 부족한 개발도상국과 연관되어 출현한 개념이다. 경제적으로 낙후한 국가에서 정치적 독립의 뒤를 이어 독재 개념의 변용인 발전 개념이 나타났다.

윌버 슈람(Wilbur Schramm), 대니얼 러너(Daniel Lerner) 등 가슴 속 깊이 민주

주의자인 미국의 학자들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국가 통합과 경제 발전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들은 뜻하지 않게 독재적 언론 통제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발전 개념은 서양과 서양의 초국가적 언론 매체에 대한 비판과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발전 개념은 미디어가 부족한 가난한 나라들의 좌절과 분노를 반영한다. 발전 개념은 신문, 방송 그리고 비디오 장비들이 명백하게 부족한, 즉 미디어 자원에 있어서 ‘가지지 못한’ 국가의 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법이다.

발전 개념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국영 통신사 등 모든 매스커뮤니케이션 기관들은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업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동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관이 내재된 개념이다. 발전 개념에서 미디어는 권위에 도전할 것이 아니라 권위를 지지해야 한다. 그 사회의 발전에 필요하다면 언론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발전 개념에서 정보는 국가의 자산이다. 정보나 뉴스는 국가의 한정적인 자원이며 그것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발전 개념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는 국가의 다수의 국민이 직면한 빈곤, 질병, 문맹 그리고 인종 문제 등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부적절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전 개념에서 개별 국가는 외국인 저널리스트들과 초국가적인 뉴스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자주적 권리를 갖는다(이동근, 2010).

중국의 언론 매체는 국유 언론 매체에 속한다. 중국의 언론 매체 산업은 국유제를 기반으로 기업화된 관리를 수행하는 사업 단위이다. 중국 언론은 당과 정부의 지도 아래 사업화 단위로서 수행함과 동시에 시장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언론은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짚어지고 있다. 첫째, 당정 홍보다. 미디어 산업은 당정 사상 방침과 정책의 선전자로서 정책 홍보와 여론 지도의 임무를 맡고 있다. 둘째, 공익 목표다. 미디어 산업은 공공 서비스의 주체로서 계급 격차를 줄이고 사회의 공평을 수호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 셋째, 상업적 이익 추구이다. 미디어 상품의 생산은 청중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청중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일정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며 언론 매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바이두 문고, 2022).

현재 중국 국가 차원의 주류 언론으로는 『인민일보』, 『신화통신』, 『중앙방

송텔레비전총국』(CCTV), 『라오칭잡지』, 『해방군신문』, 『광명신문』, 『경제일보』, 『중국일보』, 『과학기술일보』, 『인민정협신문』, 『중국기율검사감찰신문』, 『학습시보』, 『노동자일보』, 『중국청년신문』, 『중국여성신문』, 『농민일보』, 『법제일보』, 『중국신문』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곳은 『인민일보』, 『신화통신』, CCTV이다. 『인민일보』는 1948년 6월 15일 베이징에서 발행되었으며, 당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였다.

당시 중국 최고의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종합성 신문임과 동시에 유네스코(UNESCO: 國際聯合教育科學文化組織)로부터 세계 10대 주요 신문 간행물의 하나로 평가받았다. 제58회 세계신문협회 총회 통계자료를 보면, 『인민일보』 발행 부수는 250만 9천 부에 달하며, 이는 2005년 세계의 일간신문 발행 부수로 볼 때 9위에 해당한다.¹⁾ 『인민일보』는 ‘당과 인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계승하고, 적극적으로 당과 정부의 방침, 정책, 주장 등을 선전해 오고 있다. 이 신문은 중국 사회의 변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국에서 가장 높은 권위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김영욱 외, 2006).

텔레비전 보급률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CCTV의 영향력은 종이 신문보다 크지 않았지만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되면서 CCTV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 중 하나가 됐다(소후닷컴, 2022). 현재 중국에서는 디지털 TV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디지털TV가 고해상도를 보장하고 아날로그 TV의 약점을 극복하고 빅데이터 흐름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바이두 알하다, 2019).

1) <발행 부수 세계 10위에 도달하다>(人民日報參考消息發行量進世界前十) 2005년 6월 2일 자 『法制晚報』

제3장 문헌 고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관계가 긴밀해지고 양국 간 교류가 많아지면서 양국의 상대방 언론 매체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진상승(陳尚勝, 2010)은 한·중 수교 이후 경제, 문화부터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중국 언론에 비친 한국에 관한 이미지의 변화를 탐구했다. 중국 언론 매체의 한국에 관한 이미지의 발전과 변화는 사실상 중국인의 한국관 발전과 변화를 의미한다. 중국 언론의 한국적 이미지는 당대 중국인들의 한국적 시각을 반영하는 측면이 크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중국 언론이 보여준 한국의 이미지는 한·중 교류의 발전과 상호 이해의 깊이를 반영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워졌다. 향후 양국 주류 언론의 과제는 이성적 보도로 사회 대중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다.

양희선(梁熙仙, 1999)은 한·중 언론 모두 상대방에 대한 보도를 중시하고 있지만, 한국 언론이 중국 언론에 비해 중국 관련 보도에 할애하는 지면이 많고 비중도 높아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종합일간지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중국 언론은 정치, 경제 분야를 주로 현상 묘사에 치중하는 반면, 한국 언론은 정치, 군사, 한·중 관계, 남북 관계, 미·중 관계 등을 현상뿐 아니라 예측 보도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전문지의 경우, 중국 언론이 경제 분야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 언론의 시야는 넓었다.

한·중 언론 매체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탐색한 오욱(吳旭, 2022)은 한·중 양국의 우호적인 교류를 위한 양국의 견고한 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국민이 서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이자 방법으로서 한·중 양국 언론은 상대국의 발전 상황을 정면으로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양국 관계에 관한 사건을 과장하지 않고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주류 언론들이 대화 채널과 소통의 다리를 놔 한·중 우호 협력의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할 필요가 있다.

한국 텔레비전과 중국 텔레비전의 국제 뉴스 보도를 비교 분석한 김현정(金賢貞, 2013)은 과거에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로 인해 한·중 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나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이데올로기의 이질성을 줄이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상호 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고 이런 노력을 통해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됐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양국의 교류는 동북아 지역의 정세 완화와 아시아의 평화 유지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 두 나라는 안보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연구는 상대국에 대한 양국의 보도는 양적, 형식적으로 확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한국의 종합일간지 『조선일보』를 통해 한국 언론에 나타난 중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의 변화를 분석한 정인숙(鄭寅淑, 2009)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 언론에서 중국에 관한 보도량이 증가하고 더불어 한·중 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류가 중요한 의제임을 발견했고 특히 문화유산 측면에서의 양국 간 문화 교류가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였다. 시기적으로는 1997년에 비해 2005년과 2007년에 중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언론에서 중국에 관한 더욱 완전하고 생생한 국가 이미지를 발견했다.

제4장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제1절 연구 문제

1978년 개혁·개방 정책으로 촉발된 이윤 추구 위주의 시장경제 언론 제도 및 사람들의 생각 변화, 그리고 1992년 한·중 수교의 영향으로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보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뉴스 보도량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4개의 연구 문제에 답한다.

연구 문제 1: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보도량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보도량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보도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연구 문제 4: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보도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제2절 연구 방법

1 연구 기간

문화대혁명 종료 시점부터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된 1978년 이전 기간을 1 기간,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부터 1992년 한·중 수교 이전 기간을 2 기간, 그리고 한·중 수교 이후 지금까지를 3 기간으로 정했다.

2 자료 수집 및 내용분석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기사에 대한 양적, 질적 내용분석이다. 본 연구의 내용분석 대상 자료는 중국의 주류 언론 매체와 비주류 언론 매체의 한국 관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분야 뉴스 기사이다. 뉴스의 분야별 구분은 각종 뉴스의 정의를 기준으로 한다. 정치 뉴스는 정무 활동에 대한 보도이며, 경제 뉴스는 상업, 금융 등에 관한 보도이며, 사회 뉴스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관한 사회적 사건, 사회 문제 및 사회 풍모에 관한 보도이며, 문화 뉴스는 문화, 영화, 엔터테인먼트 및 기타 문화 관련 보도이며, 마지막으로 스포츠 뉴스는 스포츠에 관한 보도 기사이다(바이두 알자, 2015).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뉴스 기사의 출처는 주류 언론 매체와 비주류 언론 매체로 분류하였으며 모두 인터넷상에서 수집하였다. 주류 언론 매체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언론 매체로 『인민일보』, 『대공망』, 『경화시보』, 『중신망』, 『신화망』, 『환구시보』, 『광저우일보』, 『남방도시보』, 『중국일보망』, 『환구망』, 『중국신문망』, 『CCTV인터넷뉴스』, 『해외망』, 『신화데이리뉴스』, 『제료만보』, 『동남조보』, 『광명일보』, 『법제일보』, 『북경청년보』, 『인민망』, 『환구망』, 『매일경제신문』, 『산시완보』, 『남방망』이다. 비주류 언론 매체는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는 언론 매체로 주류 언론 매체에 비해 규모가 작은 『쏘우후신문』, 『국제온라인』, 『국학온라인』, 『오늘의역사』, 『역사

사랑넷』, 『참고소식망』, 『지에미엔신문』, 『진르터우타오』, 『북경역언협력과학기술공식계정』, 『과학윌홀』, 『차안잔왕』, 『시나재경』, 『종상뉴스』, 『토토로시야』, 『팡배신문』, 『팅원뉴스』, 『관찰자망』, 『하이샤왕』, 『바이두』, 『시나오락』, 『봉황신문』, 『니나재경』, 『베테랑영화뉴스미디어』, 『상유뉴스』, 『신량신문』, 『왕이신문』, 『평파이신문』이 여기에 속한다.

비주류 언론 매체는 비록 주류 언론 매체만큼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오늘날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지도가 높아졌고 고유한 커뮤니케이션 특성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바이두, 2022).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류 언론 매체인 『인민일보』는 뉴스 기사의 검색에 제한이 많아 다양한 방면에서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다.

1 기간과 2 기간 사이, 그리고 2 기간과 3 기간 사이, 중국 언론의 한국에 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분야 뉴스 기사량의 변화와 뉴스 기사의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기간별 뉴스 기사를 양적, 질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제5장 연구 결과

본 연구를 위한 분석 대상 뉴스 기사는 총 112건이었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이전 기간을 1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동 기간에 보도된 뉴스 기사는 1976년 6월 18일 자, 1977년 3월 7일 자, 그리고 1978년 10월 18일 자 뉴스 기사 등 총 3건으로 모두 정치 분야 뉴스이다.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부터 1992년 한·중 수교 이전까지 기간을 2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에 보도된 뉴스 기사는 1980년 4월 17일 자 뉴스 기사부터 1992년 8월 25일 자 뉴스 기사로 총 23건이며 정치 분야 뉴스 17건, 사회 분야 뉴스 3건, 문화 분야 뉴스 1건, 스포츠 분야 뉴스 2건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현재까지를 3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에 보도된 뉴스 기사는 1988년 11월 18일 자 뉴스 기사부터 2022년 12월 17일 자 뉴스 기사로 총 86건이며 정치 분야 뉴스 25건, 경제 분야 뉴스 3건, 사회 분야 뉴스 40건, 문화 분야 뉴스 14건, 스포츠 분야 뉴스 4건이다. 기간별, 그리고 뉴스 분야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표1〉 참조).

〈표1〉 기간별, 분야별 분석 뉴스 기사 건수

	1기간	2기간	3기간
정치뉴스	3 (100%)	17 (74%)	25 (29%)
경제뉴스			3 (3%)
사회뉴스		3 (13%)	40 (47%)
문화뉴스		1 (4%)	14 (16%)
스포츠뉴스		2 (9%)	4 (5%)
합계	3 (100%)	23 (100%)	86 (100%)

제1절 <연구 문제 1>의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 1>은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보도량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을 알아 보는 것이다. 분석 결과,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는 급증하였다. 1 기간 중 총 3건의 뉴스 기사 모두 정치 분야 뉴스였으나 2 기간에는 다양한 분야의 뉴스 기사 23건으로 증가하였다.

23건의 뉴스 기사 중 정치 분야 뉴스 기사는 17건으로 전체 뉴스 기사의 74%, 사회 분야 뉴스 기사는 3건으로 전체 뉴스 기사의 13%, 문화 분야 뉴스 기사는 1건으로 전체 뉴스 기사의 4%, 스포츠 분야 뉴스 기사는 2건으로 전체 뉴스 기사의 9%를 차지하였다.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기사 중 사회, 문화, 스포츠 분야 뉴스 기사가 전체 뉴스 기사의 26%를 차지했다.

개혁·개방 정책 이전에 중국 언론은 한국의 정치 분야에만 주로 관심을 두었지만,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중국 언론은 한국의 사회, 문화, 스포츠 분야에도 관심을 두게 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1 기간과 2 기간 중 경제 분야 뉴스 기사는 없었다(<표1> 참조).

제2절 <연구 문제 2>의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 2>는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보도량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한·중 수교 이전인 2 기간 중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기사 건수는 총 23건이었으나 한·중 수교 이후인 3 기간 중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기사 건수는 86건으로 급증했다.

총 86건의 뉴스 기사 중 정치 분야 뉴스 기사는 25건으로 전체 뉴스 기사의 29%, 경제 분야 뉴스 기사는 3건으로 전체 뉴스 기사의 3%, 사회 분야 뉴스 기사는 40건으로 전체 뉴스 기사의 47%, 문화 분야 뉴스 기사는 14건으로 전체 뉴스 기사의 16%, 스포츠 분야 뉴스 기사는 4건으로 전체 뉴스 기사의 5%를 차지하였다.

사회, 문화, 스포츠 분야 뉴스 기사는 증가했지만, 정치 분야 뉴스 기사는 많이 감소하였으며 한·중 수교 이전 기간 중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경제 분야 뉴스 기사도 발견되었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왕래가 잦아지면서 나타난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보도량의 꾸준한 증가 추세는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문화, 스포츠 분야로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중 수교는 양국 간 경제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표1> 참조).

제3절 <연구 문제 3>의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 3>은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중국 언론의 한국관련 뉴스 보도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 사회의 발전과 중국인들의 사상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혁·개방 정책으로 시행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는 전통적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변화시켰다.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인들은 과거의 사상에서 해방되었고 생각

도 더욱 활발해졌다. 이런 이유로 이 기간에 사회, 문화, 스포츠 뉴스 기사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또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 경제를 발전시켰다. 2000년대 들어서서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이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비주류 인터넷 매체의 한국 관련 보도가 늘고 있다.

개혁·개방 정책은 이데올로기로 인한 중국인들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고를 깬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부터 1992년 한·중 수교 이전까지 한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맺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개혁·개방 정책 이전처럼 양국 간 교집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한·중 관계가 서서히 변화하면서 이념적 차이로 인한 양국 간 차가운 긴장 분위기가 누그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양국 간 실질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가 더 이상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은 양국 간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사회, 문화, 스포츠 분야 보도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전두환 정권 시절 한·중 관계는 물밑에서 크게 발전했는데, 예를 들어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에 중국 선수단이 참가 함으로써 시작된 양국 간 스포츠 교류는 이후 경제 무역 교류와 정치적 해빙의 선례가 되었다(넷이뉴스, 2022; 왕이신문, 2022). 다음은 이 기간에 중국 언론의 한국에 관한 사회, 문화, 스포츠 분야의 뉴스 기사 예이다.

①<남조선 군용기 추락> 1982년 2월 8일 자 『인민일보』

남조선 군용기 C-123 1대가 5일 제주도 지역에 추락해 탑승 군인 53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사고 발생 후 24시간이 지나서야 비행기 잔해가 발견됐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②<남조선 여객기 리비아 추락> 1989년 7월 28일 자 『인민일보』

남조선 DC-10 여객기가 27일 오전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공항에 착륙하려던 중 추락. 탑승객 200명 중 80여 명이 생존했으며 나머지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③<남조선 여객기 이륙 중 추락> 1989년 11월 26일 자 『인민일보』
 남조선 F-28 민항기가 25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을 이륙하던 중 추락해 탑승객 52명 중 20여 명이 부상했다.

④ <남조선 최초의 신라시대 토롱 발굴> 1988년 9월 3일 자 『인민일보』
 남조선 고고학자는 1988년 6월 경주 용강동 신라시대 고분에서 채색도용 28구, 청동십이속상 7구, 도마 13구를 발굴했다. 전문가들은 신라시대의 복식, 사회 제도, 묘제,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의 교류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보고 있다.

⑤ <올림픽 성화 남조선 도착> 1988년 8월 9일 자 『인민일보』
 1988년 8월 23일 그리스 올림피아 마을에서 채화된 올림픽 성화가 27일 남조선 제주도에 도착해 현지인과 학생들의 노래와 춤으로 환영받았다고 전했다.

⑥ <서울올림픽 준비는 계속된다> 1988년 9월 12일 자 『인민일보』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찬에서 외신기자들에게 “제24회 올림픽 준비는 모두 끝났다”며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참가한 모든 직원은 이미 모든 준비 작업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제4절 <연구 문제 4>의 분석결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 4>는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보도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교류가 긴밀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 수가 늘어나자 낯선 이웃 나라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한·중 수교 이전에 비해 중국 언론에서 한국 관련 뉴스 보도량도 많이 증가하였고 보도 내용도 더욱 풍부해졌다.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분야가 점차 중국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관련 보도는 더 이상 국가가 관리하는 주류 언론 매체인 『인민일보』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비주류 언론 매체들도 한국 관련 뉴스를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 기간에 뉴스 기사 총 86건 중 42건은 주류 언론 매체에서, 44건은 비주류 언론 매체에서 나왔다.

정치 뉴스 기사 25건 중 6건이 비주류 언론 매체에서 나왔고, 경제 뉴스 기사 3건 중 1건, 사회 뉴스 기사 40건 중 21건, 문화 뉴스 기사 14건 중 13건, 스포츠 뉴스 기사 4건 중 3건이 비주류 언론 매체에서 나왔다. 정치 뉴스 기사와 경제 뉴스 기사의 경우 주류 언론 매체에서 나온 뉴스 기사가 더 많았고, 사회, 문화, 스포츠 뉴스 기사는 주류 언론 매체보다 비주류 언론 매체에서 나온 뉴스 기사가 더 많았다. 특히 문화 뉴스 기사의 경우 총 14건 중 13건인 93%가 비주류 언론 매체에서 나왔다(<표3> 참조).

<표 2> 1기간, 2기간 주류 언론 매체, 비주류 언론 매체 뉴스 기사 건수

	1기간		2기간	
	주류매체	비주류매체	주류매체	비주류매체
정치 뉴스	3		17	
경제 뉴스				
사회 뉴스			3	
문화 뉴스			1	
스포츠 뉴스			2	
합계	3		23	

<표 3> 3기간 주류 언론 매체, 비주류 언론 매체 뉴스 기사 건수

	3기간				
	정치뉴스	경제뉴스	사회뉴스	문화뉴스	스포츠뉴스
주류매체	19 (76%)	2 (67%)	19 (48%)	1 (7%)	1 (25%)
비주류매체	6 (24%)	1 (33%)	21 (52%)	13 (93%)	3 (75%)
합계	25 (100%)	3 (100%)	40 (100%)	14 (100%)	4 (100%)
총계	86				

한국의 정치 분야를 보도한 중국 언론은 더 이상 주류 언론 매체에 국한되지 않았다. 3기간 중 정치 뉴스 기사 총 25건 중 24%인 6건이 비주류 언론 매체에서 나왔다. 다음은 이 기간에 있었던 중국 언론의 한국에 관한 정치 분야 뉴스 기사 예이다.

① <1980년 5월 18일 광주사태> 2009년 5월 18일 『쏘우후신문』

1980년 3월부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계속되어 광주 시민·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들은 전두환의 사퇴와 조속한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였다. 전두환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운동 지도자를 체포하며 피비린내 나는 탄압을 가했다. 광주사태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정당법이 제정되었고, 정치범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이 시행되어 1985년 2월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창당한 지 1개월도 안 되는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이 되면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견제 역할을 했다.

이후 야당과 학생, 시민들은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며 정부를 압박하는 시위를 벌였다. 1987년 전두환은 신한민주당 의원 10여 명의 탈당을 빌미로 “야권 분열로 개헌이 불가능해져 1988년 9월 서울올림픽 이후로 개헌을 미뤄야 한다”고 발표했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야당과 공조해 개헌과 대통령 직선제의 신속 실시, 국민의 기본적 인권 확대와 보장을 위한 단체와의 대화, 언론기본법 개정 등의 민주화 선언을 했다. 이후 개헌 논의가 시작돼 10월 27일 국민투표 결과 93%의 찬성으로 새 헌법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취소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어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이 확대됐다.

② <남한군과 북한군, 국경서 짧은 교전... 북 선제사격 의도 없었다> 2020년 5월

4일 자 『참고소식망』

북한이 3일(현지 시각) 발사한 여러 발의 총탄이 비무장지대(DMZ) 내 한국 초소를 명중시켜 대응 사격을 유도했지만, 북한의 발포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한국의 경제에 관한 뉴스 기사를 다룬 중국 언론도 더 이상 주류 언론 매체에 국한되지 않았다. 3기간 중 경제 뉴스 기사 총 3건 중 33%인 1건이 비주류 언론 매체에서 나왔다. 다음은 이 기간에 있었던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경제 분야 뉴스 기사 예이다.

① <사드, 롯데 이익 95% 급감 중, 매출 30% 감소> 2017년 8월 4일 자 『인민일보』

전자공시시스템 등이 3일 발표한 잠정 통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의 연결 영업이익은 2분기 8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감소했다. 매출은 4.3% 감소한 6조 9228억원, 당기순이익은 95% 급감한 41억 원을 기록했다.

3기간 중 중국 언론의 한국에 관한 사회 분야 뉴스 기사는 주류 언론 매체보다 비주류 언론 매체에서 더 많이 나왔다. 사회 뉴스 기사 총 40건 중 52%인 21건의 뉴스 기사가 비주류 언론 매체에서 나왔다. 다음은 이 기간에 있었던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사회 분야 뉴스 기사 예이다.

① <한국의 악명 높은 복지시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곳이 지옥이었다고 말한다> 2022년 8월 26일 자 『북경역언협력과학기술공식계정』

한국의 동남부에 위치한 최대 항구도시 부산에 있던 '형제의 집'이라는 복지원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군사 독재 정권이 노숙자들을 강제로 가둔 곳이다. 대외적으로는 노숙인을 위한 숙박과 재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야말로 인간 지옥이다.

② <대한민국 제1의 살인마 유영철> 2021년 11월 20일 자 『쏘우후신문』

2003년 다수의 살인 희생자가 속출했다. 희생자는 포르노업에 종사하는 비행 여자로부터 대학교수까지 다양했다. 대대적인 수사 끝에 경찰은 대한민국 최고의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을 검거하였다.

3기간 중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문화 뉴스 기사도 주류 언론 매체 보다 비주류 언론 매체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총 14건의 문화 뉴스 기사 중에서 무려 93%인 13건의 뉴스 기사가 비주류 언론 매체에서 나왔고 주류 언론 매체에서는 단 1건의 기사만 나왔다. 다음은 이 기간에 있었던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문화 분야 뉴스 기사 예이다.

① <2017년 대한민국 연예계 5대 사건 다 알아?> 2017년 12월 27일 자 『시나오락』

2018년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2017년은 누구에게나 남다른 한 해였다. 한국의 연예계에도 올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좋은 일도 많았고 나쁜 일도 많았다. 2017년 중 발생한 5대 사건을 짚어보았다. 5위는 배우 김우빈 비인두암 진단, 4위는 보이 그룹 빅뱅 멤버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 3위는 배우 김주혁 사망, 2위는 연예인 송중기와 송혜교 결혼, 1위는 음악 그룹 샤이니 김종현 자살.

② <또 한 쌍의 한류스타 공식 이혼, 구혜선 해탈 선언, 안재현 계정 비웠다> 2022년 12월 17일 자 『쏘우후신문』

한국의 유명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이 1년 가까이 이혼 소송을 해왔다. 두 사람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애 나섰다고 보도했고 이날 두 사람은 각자의 변호인을 통해 이혼 의사를 전달했고 결국 이혼이 확정되었다.

스포츠 뉴스 기사도 주류 언론 매체 보다 비주류 언론 매체에서 더 많이 나왔다. 3기간 중 총 4건의 스포츠 뉴스 기사 중에서 무려 75%인 3건의 뉴스 기사가 비주

류 언론 매체에서 나왔고 주류 언론 매체에서는 단 1건의 기사만 나왔다. 다음은 이 기간에 있었던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스포츠 분야 뉴스 기사 예이다.

① <옛 사진: 1988년 서울 올림픽 성화 점화> 2021년 8월 3일 자 『텅쑤망』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였던 76세의 손기정이 10만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 성화를 들고 입장하자 제10회 아시안 게임 3관왕 임춘애가 성화를 받아 그라운드를 한 바퀴 돌았다. 이어 스포츠와 과학기술, 예술을 상징하는 남성 2인과 여성 1인이 성화를 받아 올림픽 성화대에 불을 붙였다.

② <여자배구 갑질 결과 이재영 자매, 국가대표에서 쫓겨나 백수 신세가 됐다> 2021년 2월 15일 자 『텅쑤망』

대한배구협회는 15일(현지시각) '괴롭힘 사태'를 발생시킨 이재영, 이다영 자매를 대표팀에서 제명하고, 한국 여자배구 대표로는 도쿄올림픽을 포함해 어떤 국제대회도 출전할 수 없도록 결정했으며, 국내 리그 출전 자격도 박탈했다. 며칠 만에 한국 여자배구 유망주 쌍둥이들은 백수 신세가 됐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날로 긴밀해져 중국인 중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한·중 수교 이전에 한국에서 발생한 과거 사건들이 중국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는 한중 수교 이후 한국 관련 사건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람들의 호기심과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언론이 한·중 수교 이전에 발생한 과거의 사건을 보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기간 중 총 86건의 뉴스 기사 중 12건이 한·중 수교 이전에 발생한 과거 사건 뉴스 기사였다. 이들 12건의 뉴스 기사 중 1976년 6월 18일부터 1978년 10월 18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보도한 뉴스 기사는 1건이었고 나머지 11건은 1980년 4월 7일부터 1992년 8월 25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보도한 뉴스 기사이다(<표 4> 참조).

〈표4〉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언론에 보도된 한·중 수교 이전 발생 한국 사건

발생 연도	기사 제목	보도 날짜	출처
1976	1976년 남북 나무 베기 사건	2014년 06월 23일	대공넷
1979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쿠데타	2008년 12월 12일	인민망
1980	1980년 5월 18일 광주사태	2009년 05월 18일	쏘우후신문
1983	1983년 김일성 암살 계획 수립	2010년 04월 20일	국제 온라인
1987	1987년 대한항공 855편 추락 사고 전말	2017년 8월 25일	쏘우후 신문
1987	해외 형사 파일 003: 대한민국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2018년 12월 24일	진르터우타오
1987	한국의 악명 높은 복지시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곳이 지옥이었다고 말한다	2022년 08월 26일	북경역언협력 과학기술공식 계정
1988	옛 사진 1988년 서울 올림픽 성화 2남 1녀가 점화	2021년 8월 3일	텅쑤망
1990	문익환 목사 석방	2021년 10월 21일	국학 온라인
1990	한국 30년 전 연쇄살인 사건 종결... 살해 14명, 강간 9명	2020년 7월 2일	지에미엔신문
1991	소년 5명 실종 11년 만에 시신 수습...공소시효 15년 만에 미궁	2022년 10월 24일	쏘우후신문
1992	1992년 영화 '동사서독' 제작진 한국 방송 탐방, 오랜만에 만난 황금시대	2017년 3월 20일	바이두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한국 관련 사안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인 사회 뉴스

보다 한국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살인사건·재난사고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사건이 사람들의 눈길을 더 끌게 되자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기사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살인사건, 재난 사고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일탈적인 사건 뉴스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뉴스 기사 총 112건 중 83건(74%)이 ‘사건·사고 뉴스 기사’ 였고 29건(26%)만이 ‘비 사건·사고 뉴스 기사’, 즉 이슈 관련 뉴스 기사였다. 다음은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폭력 사건, 살인사건, 재난 사고 등 자극적, 폭력적, 선정적 일탈적 뉴스 기사 예이다.

① <1987년, 대한항공 858편 추락 사고> 2017년 8월 25일 자 『쏘우후신문』

1987년 12월 29일 14시 5분 대한항공 858편이 안다만 해상에서 갑자기 폭발해 탑승자 104명과 승무원 11명이 전원 사망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이라고 발표했다. 검거된 용의자인 26세의 여성 김현희는 공범인 70세 김승일과 함께 항공기 짐칸에 시한폭탄 1개를 9시간 후에 폭발하도록 설치한 뒤 곧이어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이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막기 위한 테러였다고 진술했다.

② <언거푸 30차례 찌르다. 우울증으로 형량을 줄이려고? 한국 네티즌들이 청와대를 뜨겁게 달궜다> 2018년 10월 23일 자 『중상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A씨(21)는 환불을 요구하며 수 차례 시비를 걸어온 피의자 김씨에게 입장료를 환불해줬다. 김씨는 경찰로부터 훈계를 받은 뒤 PC방 근처로 다시 돌아와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A씨를 살해했다. 사건 직후 피의자 김씨는 우울증을 이유로 감형을 받기 위해 감호소를 찾았다.

③ <해외 형사 피일 003: 대한민국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2018년 12월 24일 자 『진르터우타오』

1987년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이라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집단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오대양교 신도 3명의 싸늘한 시신이 천장에 매달린 사건은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④ <제주도 남편 살인사건의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6월 16일 자 『환구망』

살인, 시신 훼손, 유기 등 여러 혐의로 12일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고유정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살해 동기와 범행 수법 등 범행 세부 사항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한국의 일간지 『세계일보』가 13일 밝혔다. 여러 증거가 고유정의 계획범죄를 가리키고 있지만, 경찰 진술에서 고유정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고유정은 법원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오른손에 남긴 증거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⑤ <한국 30년 전 연쇄살인 사건 종결 ... 살해 14명, 강간 9명> 2020년 7월 2일 자 『지에미엔신문』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1년에 걸친 재수사 끝에 사건이 공식 종결됐다. 경찰은 이춘재가 여성 14명을 살해하고 9명을 성폭행하고 강도행각을 벌여 다수의 피해자가 피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재수사 과정에서 불법 감금과 은닉 혐의로 경찰 수사관 9명이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⑥ <미군이 한국 거리에서 또 큰 사고를 쳤다! 10톤 장갑차, 승용차를 들이받고 승객 모두 숨져> 2020년 9월 1일 자 『토토로시야』

8월 30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의 한 도로에서 주한 미군 소속 장갑차가 민간인이 몰던 SUV와 충돌해 심하게 파손된 차량 2대가 도로 전체를 가로막는 이례적인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외신들이 『서울경제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⑦ <여자 네티즌으로부터 구애를 거절당하자, 세 모녀를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 곁에서 사흘간 맥주를 마셨다> 2021년 4월 15일 자 『산시완보』

용의자 김태현은 현재 25세로 일정한 직업 없이 온종일 빈둥빈둥 지내며 대부분

시간을 인터넷 카페에 틀어박혀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었다. 김태현은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A여인을 알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세 차례 만났다. 김태현은 A여인에게 호감을 갖고 사랑을 고백했으나 여성이 거절했다. 피해자의 거듭된 거절에 화가 치밀어 오른 피의자는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한 뒤 택배 기사 행세를 하며 A여인에게 문을 열도록 유인해 살해했다.

⑧ <원조 아이돌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 2021년 5월 18일 자 『바이두』

가수 김성재가 1995년 12월 20일 호텔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의 사인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인 것으로 보고 다음 날 부검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투여한 약물은 독성 동물마취제였으며, 주사 부위는 김씨의 오른팔이었으며, 김씨의 몸에서 28개의 주사 바늘 흔적이 발견됐다.

⑨ <2021년 군 스캔들: 여군, 상사 성폭행 신고에 무방비, 신혼 밤 자살로 결백 증명> 2022년 10월 1일 자 『쏘우후신문』

이에림의 가족은 이에림이 강간당했다는 모든 증거를 즉각 공개하기로 했다. 온 국민은 대한민국 공군이 이렇게 부패한 줄 몰랐다고 했다. 이틀 만에 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관련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국방부가 국민의 압력에 손을 들었다.

⑩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정신지체 환자의 분풀이 방화로 100여 명 사망> 2022년 12월 28일 자 『쏘우후신문』

2003년 2월 대구의 한 지하철에서 단속 부실로 방화가 발생했는데 진화 지휘와 구조 부진으로 사상자가 속출했다. 정부는 열차와 지하철의 보안 검색을 더욱 강화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판단과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과 관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언론 매체가 독자의 시선을 끌고 독자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건이나 이슈를 의제화하거나 프레임화하게 되면 해당 뉴스 보도에 등장하는 이해 당사자 간 갈등과 불신이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1992년 한·중 수교라고 하는 사회 제도적 요인이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하기 위해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보도량과 보도 내용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는 급증하였다. 개혁·개방 정책 이전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는 단 3건이었으며 3건 모두 정치 뉴스 기사였으나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기사는 총 23건이었으며 정치,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 뉴스 기사였다. 개혁·개방 정책 이전에는 중국 언론이 한국의 정치 분야에만 주로 관심을 두었지만,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정치는 물론 사회, 문화,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국에 관심을 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정책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에도 중국 언론에 한국의 경제 분야에 관한 뉴스 기사는 없었다.

개혁·개방 정책으로 시행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는 전통적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변화시켰다.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 사회의 발전과 중국인들의 사상 변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인들은 과거의 사상에서 해방되었고 생각도 더욱 활발해졌다. 개혁·개방 정책은 이데올로기로 인한 중국인들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고를 깬다. 개혁·개방 정책 이전에는 양국 간 교집합이 전혀 없었지만,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한·중 관계가 서서히 변화하면서 이념적 차이로 인한 양국 간 차가운 긴장 분위기가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아직 양국 간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 간 실질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가 더 이상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은 양국 간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사회, 문화, 스포츠 분야 보도로 중국인들이 한국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중 수교 이전에 개최되었던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에 중국 선수단의 참가로 비롯된 양국 간 스포츠 교류는 양국 간 경제, 무역 교류를 낳았고 정치적 해빙의 선례가 되었다.

한·중 수교 이전에 비해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언론에서 한국 관련 뉴스 기사 건수는 급증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사회, 문화, 스포츠 분야 뉴스 기사는 증가했고 정치 분야 뉴스 기사는 감소하였으며 한·중 수교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경제 분야 뉴스 기사도 발견되었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왕래가 잦아지면서 나타난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보도량의 꾸준한 증가 추세는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문화, 스포츠 분야로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중 수교는 양국 간 경제 분야의 교류를 촉진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한·중 수교 이전에 비해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보도량이 많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보도 내용도 더욱 풍부해졌다. 더 이상 한국 관련 보도가 『인민일보』 등 국가가 관리하는 주류 언론 매체에 국한되지 않았고,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다수의 비주류 언론 매체들도 한국 관련 뉴스를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접어들어 인터넷의 발달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 되었다. 한·중 수교 이후 정치 뉴스 기사와 경제 뉴스 기사는 비주류 언론 매체보다 주류 언론 매체에 더 많았지만, 사회, 문화, 스포츠 뉴스 기사는 주류 언론 매체보다 비주류 언론 매체에 더 많았다. 특히 한·중 수교 이후, 문화 뉴스 기사의 경우 총 14건 중 13건이 비주류 언론 매체에서 나왔다.

제2절 결론

뉴스 기사에 대한 양적,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중국 사회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가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보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여 개혁·개방 정책과 한·중 수교가 중국 언론의 한국에 관한 뉴스 보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한·중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보도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이 연구의 분석 대상 자료인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 기사는 체계적인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기간 중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 뉴스 기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인민일보』를 포함한 주류 언론 매체에 대한 검색 제한과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설정된 연구 기간, 그리고 방대한 인터넷 환경 등으로 인해 수집 가능한 뉴스 기사만 수집하다 보니 기간별로 같은 건수의 뉴스 기사를 수집하여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하지 못했다. 향후 유사한 주제의 연구 수행 시에는 시간상으로 여유가 있는 준비기간을 갖고 수집된 모든 뉴스 기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춘 표본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영욱, 김성해, 이토 요이치, 장귀량 (2006). 『미디어에 나타난 이웃: 한·중·일 언론의 상호 국가 보도』 한국언론재단.

오세욱, 정세훈, 박아란 (2017). 『가짜뉴스 현황과 문제점』, 한국언론진흥재단

오택섭, 강현두, 최정호 (2003). 『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출판, pp. 109~110.

윤세경, 이석, 정지인 (2012). <중국 일간지의 “한류” 보도에 나타난 프레임 분석: 2001~2010년 기간에 보도된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pp. 202~226.

이동근 율김 (2010). 『통신위성 시대의 국제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The World News Prism: Global Information in a Satellite Age*. William A. Hachten & James F. Scotton (지은이).

이동근 율김 (2021). 『여론』. 커뮤니케이션북스, *Public Opinion*. Walter Lippmann (지은이).

풍영인 (2011), <중국 언론의 객관성 개념과 그 변천: 문헌 고찰과 언론보도의 내용 분석>, 조선대학교 학위논문,

최용준, 최윤구 (2013), <중국 3대 언론 매체의 관련 보도 행태 연구>, 『언론과사회』, 21권 2호, pp. 119~159.

金贤贞 (2013). 《中國與韓國電視國際新聞報道比較研究》 山东大学, 硕士论文

- 骆正林 (2022). 《社交媒體時代虛假新聞的社會危害與治理路徑》，未來傳播期刊，第1期
- 左亦魯 (2021), 《假新聞：是什麼？為什麼？怎麼辦？》，中外法學，第2期
- 王桂蘭 (2001), 《改革開放對人們的思想影響論綱》，河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8卷，第6期
- 李俐 (2017), 《淺析“韓流”對中國文化及社會影響》，吉林師範大學博達學院，湖北函授大學學報，第11期
- 贾庆国 (2022), 《關於加強打擊網絡上編造和散布虛假信息行爲的提案》，北京大學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
- 尚荃 (2022), 《媒介社會學視野下微信的跨文化傳播研究》，新聞研究導刊, pp. 50~52
- 梁熙仙 (1999). 《中韓大眾傳媒相互報道比較研究—以1997年的報紙為例》，新聞大學, pp. 20~26
- 吳旭 (2022). 《從韓媒涉華輿論熱點探析中韓媒體戰略合作新路徑》，對外傳播, p.60
- 王輝 (2012), 《媒介社會學視角下的新聞客觀性剖析》，東南傳播, pp. 15~16
- 李東曉, 段丹潔 (2020), 《深化媒介社會學研究》，青年記者, p.5
- 鄭寅淑 (2009). 《從『朝鮮日報』看韓國媒體中的中國形象》，淮陰工學院學報，第18卷，第2期, pp. 55~59

陳尚勝 (2010). 《論中國媒體的韓國觀》, 韩国研究, 第11辑, pp. 233~261

黄锡富 (2010), 《论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完善与人的全面发展》, 经济与社会发展, 第7期, pp. 75~93

Shoemaker, P., & Reese, S. (2014). 『Mediating the Message in the 21st Century: A Media Sociology Perspective』.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바이두 문고 (2022), 《중국 미디어 생산 소유제, 체제 특징》, https://wk.baidu.com/view/09f2281384c24028915f804d2b160b4e767f81f0?_wks_=1681229579856&bdQuery=百度文库%2C《中国媒介产生所有制`体制特征》%2C2022

바이두 (2022). 《PR기사 발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터넷 매체는 무엇입니까?》
<https://baijiahao.baidu.com/s?id=1725806032580668929&wfr=spider&for=pc&searchword=网络媒体有哪些>

바이두는 알고 있다 (2019). 《위성TV, 케이블TV, 지상파, 디지털TV는 무엇인가》,
<https://zhidao.baidu.com/question/690248291871957372.html?fr=dqa>

바이두는 알고 있다 (2015). 《뉴스의 각 분류 간에는 무엇이 다른가》,
<https://zhidao.baidu.com/question/1820581260191142268/answer/2341845569.html>

소후닷컴 (2022). 《서민이 게재할 수 있는 국가 및 주류 언론사 신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https://m.sohu.com/a/603015562_120436831/

소후닷컴 (2018). 《개혁개방 40년, 네가 알아야 할 뉴스 산업 변혁》, https://m.sohu.com/a/282307976_650786

즈후 (2019). 《신중국 건국 70년, 저널리즘의 변화를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https://zhuanlan.zhihu.com/p/96683079?utm_id=0

부록: 분석 대상 전체 뉴스 기사 112건 제목

사건·사고 뉴스 기사

1980년 5월 21일 『인민일보』

제목: 남조선 광주 5만 군중이 괴뢰군과 격렬하게 충돌하다. 군중 화재 방송국과 신문사는 공수부대를 출동시켜 진압했다

1980년 8월 17일 『인민일보』

제목: 남조선 '대통령' 최규하 사퇴

1980년 10월 30일 『인민일보』

제목: 조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발족

1983년 6월 3일 『인민일보』

제목: 남조선 납치범 6명 기소

1983년 8월 19일 『인민일보』

제목: 서울형사지법 탁장인 등 항공기 납치범 4~6년 형 선고

1987년 12월 17일 『인민일보』

제목: 남조선 제13대 대통령 선거 국민투표 종료. 선거 결과는 오늘 확정되었다

1989년 11월 4일 『인민일보』

제목: 폴란드와 남조선이 외교 관계를 맺다

1990년 3월 31일 『인민일보』

제목: 몽골과 남조선이 수교하다

1990년 10월 2일 『인민일보』

제목; 소련과 남조선 수교

1991년 8월 7일 『인민일보』

제목; 남조선 유엔 가입 공식 신청

1992년 8월 25일 『인민일보』

제목; 중한 양국 수교 공동보도문

1982년 2월 8일 『인민일보』

제목; 남조선 군용기 추락

1989년 11월 26일 『인민일보』

제목; 남조선 여객기 이륙 중 추락

1989년 7월 28일 『인민일보』

제목; 리비아서 남조선 여객기 추락

1986년 9월 3일 『인민일보』

제목; 남조선, 신라시대 토용 첫 발굴

1988년 8월 29일 『인민일보』

제목; 남조선 올림픽 성화

1988년 9월 12일 『인민일보』

제목; 서울올림픽 준비 완료

2010년 4월 20일 『국제 온라인』

제목: 1983년 김일성 암살 계획 수립

2021년 10월 21일 『국학 온라인』

제목: 문익환 목사 석방

2006년 1월 9일 『환구시보』

제목: 주한 미군 '2005년 10대 범죄 사건' 나왔다

2005년 6월 26일 『광저우일보』

제목: 2005년 우정의 해 한일 관계 위기 고조

2007년 10월 3일 『오늘의 역사』

제목: 남북 정상 만나다

2022년 6월 4일 『역사 사랑넷』

제목: 2008년 2월 20일 군 헬기 추락 7명 사망

2013년 1월 31일 『인민망』 (『인민일보』 모바일 뉴스)

제목: 나로호 세 차례 발사 성공

2014년 6월 23일 『대공넷』

제목: 1976년 남북 나무베기 사건

2015년 3월 23일 『인민망』

제목: 남북 비무장지대 화재

2016년 12월 30일 『중국신문망』

제목: 2016년 대한민국 대사건 정리, 정치 경제 민생 겨울 맞음

2017년 11월 27일 『환구망』

제목: 여론조사, 2017년 대한민국 최대 이슈는 '박근혜 탄핵'

2020년 7월 11일 『CCTV.COM』

제목: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충격. 문재인 조문 헌화

2022년 12월 15일 『CCTV.COM』

제목: 이명박 전 대통령, 더 이상 형 집행 정지신청 안해

2020년 7월 2일 『지에미엔신문』

제목: 한국 30년 전 연쇄살인 사건 종결. 살해 14명, 강간 9명

2017년 8월 25일 『쏘우후신문』

제목: 1987년, 한국항공 858편 추락 사고 전말

2018년 12월 24일 『진르터우타오』

제목: 해외 형사 파일 003: 대한민국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2022년 8월 26일 『북경역언협력과학기술공식계정』

제목: 한국의 악명 높은 복지시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곳이 지옥이었다고 말한다

2022년 10월 24일 『쏘우후신문』

제목: 소년 5명 실종 11년 만에 시신 수습. 공소시효 15년 만에 미궁

2021년 10월 10일 『국학 온라인』

제목: 한국 여객선 해상 조난

2014년 4월 28일 『제로만보』

제목: 대한민국 성수대교 붕괴 사고

2016년 1월 18일 『동남조보』

제목: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징역 20년 선고

1998년 11월 18일 『오늘의 역사』

제목: 한국 첫 관광객 북 관광

1999년 4월 28일 『광명일보』

제목: 상하이 추락 한국기 인위적 파괴 조짐 없다

2018년 8월 5일 『쏘우후신문』

제목: 중국인 60명 밀입국, 25명 숨져. 이번 밀입국 영화화

2022년 12월 28일 『쏘우후신문』

제목: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정신지체 환자 방화 분풀이로 100여 명 사망

2021년 11월 20일 『쏘우후신문』

제목: 대한민국 제1의 살인 악마 유영철

2006년 3월 11일 『법제일보』

제목: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아동 성폭력 근절의 날”

2010년 3월 18일 『중국신문망』

제목: 중국 신문, 한국 네티즌, 살인마 지지 논란

2022년 11월 14일 『과학 워홀』

제목:대한민국 치명적 가습기 사건, 수만 명 사망의 비극 빚어낸 가습기 쓸 일
있나

2012년 12월 16일 『차안잔왕』

제목: 삼성, 암 사망 하루 8~12시간 근무

2014년 10월 8일 『인민일보』

제목: 세월호 침몰 조사 결과 발표

2015년 10월 14일 『북경 청년보』

제목: 국내 최대 사기범 조희팔 사기 마지막 주범 검거

2016년 09월 20일 『시나재경』

제목: 삼성 노트7 폭발 게이트, 글로벌 발효 리콜, 브랜드 이미지 충격

2018년 10월 23일 『중상뉴스』

제목: 연거푸 서른 번 찌르다. 우울증으로 형량을 줄이려고? 한국 네티즌들이 청
와대를 뜨겁게 달궜다.

2019년 6월 14일 『환구망』

제목: '제주 살부 사건'의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월 20일 『쏘우후신문』

제목: 한국 남성 여자친구 자매 살해 무기징역, 유족들 법정에서 절망적 항의

2020년 9월 01일 『토토로시야』

제목: 미군이 한국 거리에서 또 큰 사고를 쳤다! 10t 장갑차, 승용차 들이받아 승객 모두 숨져

2020년 10월 25일 『매일경제신문』

제목: 돌발! 한국의 '경제 대통령'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향년 78세, 재산 173억 달러

2020년 12월 14일 『팽배신문』

제목: 원형범 출소, 피해자 만나길 원해

2022년 10월 1일 『쏘우후신문』

제목: 2021년 군 스캔들: 여군 상사 성폭행 신고 무방비, 신혼밤 자살증 결백

2021년 8월 31일 『CCTV.COM』

제목: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전자 발찌 끊고 2년 더 살해

2021년 4월 15일 『산시완보』

제목: 여자 네티즌 구하려다 거절당하자, 세 모녀 찾아가 살해, 사흘 간 시신 옆에 둔 채 맥주 마셔

2021년 8월 21일 『텅쉰뉴스』

제목: 수원 토막 살해 사건: 중국 국적의 범인, 전화녹음을 듣고 국민이 한국 경찰에 욕설 퍼부었다!

2022년 10월 31일 『인민일보』

제목: 이태원 압사 사고 수사본부 설치 경찰 수사 결과

2022년 12월 29일 『해외망』

제목: 50대 동거 여주인 죽인 90년대 출생, 사진 경찰 공개

2022년 9월 1일 『해외망』

제목: 돌발! 한국 국산 군 헬기 2대 충돌, 18명 탑승

2022년 11월 1일 『하이샤왕』

제목: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154명 숨졌다. 참가자 “미치광이가 일부러 사람을 밀어냈다”

2022년 10월 30일 『CCTV.COM』

제목: 윤석열 대통령 서울 이태원 압사 사고 긴급회의

2022년 12월 5일 『해외망』

제목: 지불 거부한 주한미군, 한국인 택시 운전자 폭행

2017년 3월 20일 『바이두』

제목: 1992년 한국 방송 탐방, 영화 “동사서독” 제작진, 오랜만에 만난 황금시대

2021년 5월 18일 『바이두』

제목: 원조 아이돌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

2005년 12월 13일 『남방망』

제목: X파일이 '김삼순'을 흔들었다

2007년 12월 19일 『시나오락』

제목: 2007년 연예계 10대 뉴스

2009년 4월 3일 『시나오락』

제목: 장자연 사건 진상조사 전말: 진실을 은폐하려는 사람은 누구인가?

2013년 7월 08일 『시나오락』

제목: 2013 상반기 연예계 다사지추 스캔들 속출

2017년 8월 13일 『봉황신문』

제목: '태양의 후예' 음주 성추행 의혹

2017년 12월 27일 『시나오락』

제목: 2017년 대한민국 연예계 5대 사건 다 알아?

2018년 12월 21일 『쏘우후신문』

제목: 2018 연예계 연례 행사: 최지우 남편 레드카드 건우랑?

2019년 10월 15일 『시나재경』

제목: 최설리 자살, 공포의 한국 연예계

2019년 11월 24일 『베테랑 영화 뉴미디어』

제목: 구하라의 죽음,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를 찔렀다.

2019년 5월 8일 『쏘우후신문』

제목: 진짜 마약인가, 재벌의 모함인가. 남한에서 제일 깨끗한 남자애가 끝인데.

2020년 5월 29일 『상유뉴스』

제목: 프로듀서 안준영 PD, 투표 조작 혐의 징역 2년 확정

2022년 12월 17일 『쏘우후신문』

제목: 또 한 쌍의 한류스타 공식 이혼, 구혜선 해탈 선언, 안재현 계정 비웠다

2021년 8월 3일 『텅쉰망』

제목: 옛 사진, 1988년 서울 올림픽 성화, 남성 2인과 여성 1인이 점화

2000년 12월 29일 『신광신문』

제목: 루이, 2000년 한국 바둑 10대 뉴스

2021년 2월 15일 『텅쉰망』

제목: 여자배구 갑질 결과, 이재영 자매, 국가대표에서 쫓겨나 백수 신세 됐다

비 사건·사고 (이슈) 뉴스 기사

1976년 6월18일 『인민일보』

제목: 박정희 그룹의 반동통치와 외국 독점자본 약탈에 남조선 경제위기, 인민생활 빈곤 심화

1978년 10월 18일 『인민일보』

제목: 박정희 정권 퇴진 촉구 남조선 민주인사 서울집회 선언

1980년 4월 17일 『인민일보』

제목: 남조선 학생들의 민주 쟁취 투쟁은 계속 발전하였다.

1980년 8월 28일 『인민일보』

제목:전두환, 남조선 대통령직 빼앗다

1981년 5월 20일 『인민일보』

제목; 남조선 광주 천인 집회 봉기자 석방 요구

1982년 10월 18일 『인민일보』

제목; 남조선 광주시 대학생 수천 명 박해에 항의 시위

1983년 9월 3일 『인민일보』

제목; 소련의 남조선 여객기 격추, 각국의 격렬한 반응 불러일으켰다

1983년 11월 13일 『인민일보』

제목; 남조선 대학생들 레이건 방문 항의 시위

2008년 12월 12일 『인민망』

제목: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쿠데타

2009년 5월 18일 『쏘우후신문』

제목: 1980년 5월 18일 광주사태

2002년 7월 3일 『경화시보』

제목: 국제자료: 1998년 이후 남북 간 충돌 사건

2002년 8월 4일 『중신망』

제목: 북-미 장성급 회담 6일 남북 서해 교전 논의

2003년 7월 17일 『신화망』

제목: 한반도 또 포연. 군사분계선 교전

2005년 6월 26일 『광저우일보』

제목: 2005년 우정의 해. 한일관계 위기 고조

2010년 12월 27일 『남방도시보』

제목: 오늘 실탄훈련 23곳. 남남갈등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 제외

2014년 10월 9일 『중국일보망』

제목: 일 언론인 박근혜 명예훼손 고소당해, 일 언론 항의

2016년 11월 12일 『환구망』

제목: 박근혜 지지율 20~30대 0%, 민중 100만 명 반박 시위 준비

2016년 7월 8일 『환구망』

제목: 한미, 사드 배치 최종 결정. 외교부 화답

2020년 5월 4일 『참고소식망』

제목: 남북 군, 국경서 짧은 교전. 북 선제사격 의도 없었다

2022년 11월 9일 『해외망』

제목: 군, 북 미사일 추정 잔해 인양. 반도 동쪽 해역서

2022년 8월 18일 『신화 데일리 뉴스』

제목: 한·미 연합훈련, 한국민 반발

2011년 7월 4일 『신화망』

제목: 대한민국의 2007년 원유 유출 사고

2015년 4월 23일 『인민일보』

제목: 세월호 침몰선 인양키로

2016년 9월 22일 『인민망』 『국제채널』

제목: 경주, 지진 공포 속출 정부 대응 부실 지적

2022년 3월 2일 『관찰자망』

제목: 중국과 러시아에서만 가격을 인상하고 성분은 '이중 표준'입니까? 한국 브랜드 '오리온' 응답

2017년 8월 4일 『인민일보』

제목: 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한국 농수산물 대중 수출 급감

2017년 8월 4일 『인민일보』

제목: 사드, 롯데 이익 95% 급감, 매출 30% 감소

2019년 7월 15일 『왕이신문』

제목: 군축 계획으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 우려

2002년 3월 1일 『인민일보』

제목: 월드컵 도핑 방지 더 거세질 듯